

시편 18편: 주님의 종 다윗의 감사 찬송

시편 18편의 배경: 이 시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이고,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고 시 앞부분에 적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첫번째 왕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번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전사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큰 영웅으로 환영 받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에게 많은 박해를 받다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번째 왕이 되어 사방의 대적들을 파하고 국경을 확장하고, 무엇보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정치 종교 등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편 18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모든 고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구해 주셨는지 적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군데 다른 점은 있지만 같은 시가 사무엘하 22 장에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많은 시를 지은 시인이기도 하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1.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찬양: 1-2 절

1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시의 앞부분에서 다윗은 “주님의 종 다윗”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통치자이심을 잊지 않았고, 자신은 늘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감사의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신지 여러 은유—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표현합니다.

2.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3-19 절

6...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19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 주셨다.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죽음의 물살이 덮친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3-6 절). 7-15 절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 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보다 더 강하지만, 다윗을 그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더 힘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19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적고 있는데, 사무엘상 13 장 14 절과 사도행전 13 장 22 절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a man after God’s own heart”) 라고 인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3.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 20-28 절

20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 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다윗은 20 절에서 자신이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 (21 절)고,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다” (22 절)고 합니다. 다윗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통치자이심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름부어 왕으로 삼으신 사울이기에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을 떠나지 않고 죄짓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켰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 신실함에 주님은 다윗을 신실함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25 절).

4.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승리: 29-45 절

3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31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말씀은 티도 없으며, 하나님은 그분께로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달리며, 낫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길 수 있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31-36 절). 37-42 절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이 그의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해 주셨음을 적고 있습니다.

5. 한결같은 사랑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46-50 절

46 주님은 살아 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라. 50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무궁 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1 절에서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시작했던 다윗은, 살아 계시는 주님이 자신의 반석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를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의 자손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무궁 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메시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심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9:6-7, 누가복음 1:31-33).